

김현미 장관 “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”

20일 건설현장 간담회 및 현장점검...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대 통한 추락사고 예방 총력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14시부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.
- 이번 현장 간담회와 현장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의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,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함께 하였다.
-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“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며,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- “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라고 강조하며,
- “공공공사에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, 중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협회,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전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”이라 밝혔다.

- 아울러, 김 장관은 “안전은 정부만, 발주자만, 시공사만, 노동자만 잘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룩되는 것”이라며,
-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“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 하고,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”을 당부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.
- 이후, 공동주택 공사장을 점검한 김 장관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“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도도 만전을 기해줄 것” 과,
- “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9. 2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